

통증은 지각 경험의 일종인가?

김효은*

【요약】

의식적 경험은 심리철학에서 시각 청각 후각과 관련된 지각 경험과 신체 감각과 관련된 비지각적 경험으로 구분되어 왔다. 이 논문은 통증 경험이 시각 경험처럼 지각 경험에 속하는지, 아니면 비지각적 경험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경험의 내용이 대상이라는 객관적인 측면을 통해 그 경험 속성이 설명되는지, 아니면 주관적인 내성의 측면을 통해 설명되는지의 여부에 따른다. 그러나 주관적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면, 환상통이나 연관통, 그리고 의학적 처치에 따른 통증 경험의 변화 등 실제적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므로, 통증 경험이 과연 비지각적 경험인지는 논란이 되어왔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드레츠키 방식의 표상주의 설명이 통증 경험의 다양성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통증 경험이 대상으로 부여된다는 언어 사용의 측면과도 양립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실험철학의 연구가 통증 경험의 대상적 측면을 부각시킨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통증 경험의 특징이 경험의 주관적 측면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설명들에서도 통증 경험의 대상의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주제어】 통증, 지각 경험, 지각주의, 표상주의, 드레츠키

*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 이 논문의 초고에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I. 서론

통증(pain)¹⁾은 신체 감각의 대표적 예로 간주되며, 의식이나 감각질에 관해 탐구하기 용이한 측면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심리철학에서는 심신관계와 감각질을 다루는 대표적 예로 통증 경험을 자주 사용한다. 본 논문이 색 감각질과 같은 시각이나 후각, 청각과 관련된 감각질보다 특히 통증(pain) 감각질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지 심리철학의 이러한 용례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통증이 의식 경험의 주요 특성들로 여겨지는 사밀성, 주관성, 직접성 등, 일인칭적 접근에 의한 해명을 필요로 하는 특징들을 다른 종류의 경험들보다 두드러지게 갖추고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통증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극에 대하여 생리학적 반응과 신체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물리적이고 대상에 속하는 측면과, 동시에 불쾌한 느낌이라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²⁾ 전자는 보통 색깔 경험이나 후각처럼 대상에 그 경험의 속성을 귀속시키는 ‘지각’(perception)의 측면이며, 후자는 촉각과 같은 ‘감각(sensation)’의 측면이다. 통증이 특히 의식을 연구하는데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통증이 두 측면을 모두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지각과 달리 처음부터 경험 그 자체와 그 특질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1) 필자는 ‘pain’을 ‘고통’보다는 ‘통증’으로 번역한다. 반면 고통은 ‘suffering’이라는 심리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에 걸맞은 번역어로 본다. ‘고통’이라는 단어는 신체의 특정부위의 자극보다는, 불쾌한 심리상태를 겪는 심리상태(suffering)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리적/신체적 고통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지만, 심리적 통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고통’과 ‘통증’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필자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할 때에는 영어로만 구분하고, 일상적인 사용의 예를 따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통증’을 사용할 텐데, 이는 고통이라는 심적 측면으로만 독해될 우려가 있어서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통증’을 사용하겠다.

2) Melzack & Casey 1968.

이 논문이 검토하는 ‘통증이 지각적 경험인가’의 문제는 통증이 과연 시각 경험처럼 지각의 특징들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지각적 경험’과 ‘비지각적 경험’이란 전자는 색깔 경험처럼 그 경험 속성을 외부 대상의 속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을 지칭하며, 후자는 그 경험을 가지는 담지자 내부의 내성적(introspective) 경험을 통해서 특징 지워지는 경험을 일컫는다. 통증을 이렇게 다른 종류의 경험-대표적으로는 시각 경험-과 견주어 그 본성을 검토하는 이유는 ‘현상적 의식(phenomenal consciousness)’이라는 상태가 통증 경험뿐만 아니라 시각 경험을 비롯한 촉각, 후각, 미각 청각 등 오감과 관련된 경험들을 모두 포함하며, 이는 전통적으로 심리철학에서 믿음, 동기와 같은 지향적 상태(intentional states)와 대비되는 영역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비가 논의되어 온 이유는, 만약 현상적 의식 안에 포섭되는 여러 종류의 경험이 동일한 경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경험들을 과연 동일한 ‘현상적 의식’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는지 재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증이 지각적 경험의 일종인지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통증 경험과 시각 경험이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상적 의식’이라는 범주 아래 분류되어왔기 때문이다. 통증과 대표적인 시각 경험인 색깔 경험을 비교해보자. 시각 경험 중 하나인 색깔 경험은 그 경험 내용의 속성을 외부 대상에 부여하므로, 경험하는 주체가 없이도 경험 속성은 존재할 수 있는 반면, 통증 경험의 내용은 이를 경험하는 주체가 경험하는 한에 있어서만 존재한다. 반면, 통증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경험되지 않고도 존재하는 통증이란 어불성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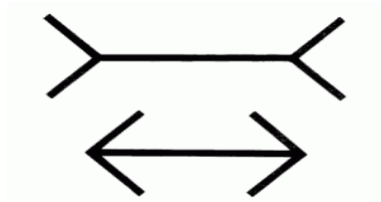
따라서 다음의 질문에 대해 긍정과 부정 중 어느 대답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통증 경험의 상태가 지각 상태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다. “통증 경험을 가진다는 상태는 그 통증을 가진 사람이 그 통증을 느낄 때에만 그러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통증 경험은 지각 경험이 아니다.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통증 경험은 지각 경험에 속한다. 이 논문은

후자를 주장하는 지각주의(3절)와 표상주의의 설명(4, 5절)을 검토하고, 실제 통증 경험이 대상이나 경험 중 어느 곳에 부여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6절), 통증 경험이 시각 경험처럼 지각 경험인지, 아닌지에 대해 잠정적으로 결론내릴 것이다.

II. 통증 경험에서 현상과 실재의 구분

통증 표현의 의미론적 속성과 통증의 개념적 역할은 다소 차이가 난다. 먼저 통증 표현의 의미론적 속성을 보자. 우리는 “아랫배가 아프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통증을 우리 몸 표면이나 몸 안의 어떤 특정 위치에 귀속시킨다. 이 때, 우리는 통증이 마치 마음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통증에 대한 표현을 사용한다. 두 번째로 통증의 개념적 역할을 보자. ‘통증’이라는 개념에서는 통증이 외부에 따로 있고 통증 경험이 따로 있다고 상정하지 않는다. 즉, 어떤 사람이 통증을 느낀다면 그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외부 대상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증에 있어서 의미론적 내용과 개념적 내용은 다소 차이가 난다. 즉, 의미론적 내용에서는 통증의 실재와 현상이 구분되어 있는 반면, 개념적 내용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왜 통증 개념에 있어서는 ‘실재(reality)’와 ‘현상(appearance)’이 구분되기 어려운가? 재언하자면, 통증이라는 속성을 귀속하는 대상과 통증이라는 속성을 경험하는 주체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은 냄새나 시각 경험, 맛과 같은 다른 종류의 감각질에도 적용되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 통증 경험의 어떤 특성이 실재와 현상의 구분을 없게 하는지를 보자.

아래의 뮐러 라이어 환시(Muller-Lyer illusion) 그림을 보자. 사람들은 두 선의 길이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다고 말함으로써 현상과 실재를 구분할 수 있다.



소리나 냄새에 있어서도 현상과 실재의 측면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각, 소리, 냄새 등은 대상 그 자체에 속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관점과 주관적인 관점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과 실재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통증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만약 통증에 있어서 현상과 실재가 구분된다고 하자. 이 경우, ‘통증을 느끼는 것(feeling pain)’과 ‘통증을 가지는 것(having pain)’은 구분되어야 한다. 즉, 한 측면이 다른 측면 없이도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통증을 느끼는 것’이 없이도 ‘통증을 가지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느껴지지 않는 통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으로 들린다. 또, 내가 통증을 느낄 때 “이 통증은 내가 느끼는 것뿐이지, 실제로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자기모순인 것처럼 들린다. 이는 ‘통증’이라는 개념의 의미에 있어서, 현상과 실재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상과 실재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 경험 상태에 있어서 의미하는 것은 그 경험 상태가 오류불가능(*infallible*)하고 따라서 수정불가능(*incorrigible*)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팔이 불에 데어 뜨거움을 경험하였을 때 그 뜨거움을 야기하는 화롯불이나 그 뜨거움을 느끼는 내 팔의 존재는 의심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뜨겁다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판단은 틀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통증에 있어서 ‘현상과 실재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개념의 의미에 대한 내성적 관찰에만 근거하며, 확실한 토대를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 현상과 실재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통증에 대한 내성적 관찰이 오류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기반해 있는데, 최근 밝혀진 증거들은 내성적 관찰 자체가 오류 가능하고 교정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기반으로 통증에 있어서 현상/실재의 구분이 없다는 생각이 근거가 없을 수 있다. 나 자신의 심적 상태에 대해 직접적인 내적 경험을 통해 접근하는 일인칭적인 접근의 내성적 방법은 “자신의 심적 상태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한다는 것은 곧 그 경험 상태의 질적 상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정한다. 하지만 통증을 경험하면서도 잘못된 상태를 가지는 사례가 있다. 한 실험은 이를 보여준다. 실험자는 피험자의 눈을 가리고 피험자의 목에 얼음 조각을 대면서 “지금 당신의 목에 칼끝을 깊숙이 대고 있다”라고 하였을 때, 그 피험자는 자신의 목에 차가운 느낌 대신,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고 한다. 이는 내성이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불확실한 정보를 담지할 수 있으며 내가 실제로 가지지 않는 상태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견해와 달리 통증에 있어서도 ‘통증을 경험함’과 ‘통증을 가짐’은 구분될 수 있고, 이에 대응하는 현상과 실재 또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검토하고자 하는 ‘통증 경험이 지각 경험의 일종인지’의 문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하는 입장은 통증 경험과 시각 경험을 동일한 종류로 간주할 수 있으며, 경험뿐만 아니라 통증 경험의 대상적 측면이 통증 경험의 본성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후속 절들에서 이러한 주장의 여러 양상들이 지각이론, 두 가지 종류의 표상주의, 그리고 실제의 통증 경험 부여에 대한 설명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III. 지각 이론에 있어서 통증 경험

통증에 있어서도 현상과 실재가 구분되고 잘못된 지각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심리철학에서 지각주의(perceptualism)를 옹호하는 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각주의 옹호자인 암스트롱(D. M. Armstrong)은 통증도 색에 대한 경험처럼 외부 대상의 객관적 조건들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통증은 내성에 의해서만 접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지각의 한 종류로, 통증이 발생하는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을 포함한다.³⁾ 예컨대, 어깨가 뭉쳐서 통증이 있다고 하자. 이 때 우리는 어깨의 상태나 물리적 특징을 지각하는 체성감각(somatosensory)의 상태이다. 즉, 피부 조직이 어떤 병리학적 상태 때문에 물리적으로 손상된 상태나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통각(nociceptor)이 활성화됨으로써 인지하게 되는 상태이다. 통증은 촉각의 한 종류에 속하므로, 촉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몸의 위치에 대한 감각인 고유감각(proprioception)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

지각 이론은 경험의 측면과 대상의 측면 양자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지각 이론을 옹호하는 철학자들은 통증을 곧 그와 관련된 외부 상태로 정의하지 못한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통증의 경험이 가지는 직접성이나 사밀성 등을 설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각 이론의 옹호자들은 ‘통증’과 ‘피부 조직 손상’을 직접적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먼저 통증 경험과 동일시한 후, 그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부 조직 손상을 연결 짓는 방법을 택한다. 이 방법은 통증과 통증 경험이 동일시된다면 통증 경험이 가지는 직접성이나 사밀성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설명을 첫 번째 조건과 일관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두 조건은 내용상 상충되기 때문이다.

지각주의에서 채택하는 하나의 전략은 두 가지 설명을 다른 수준에 배치하여 이원적인 설명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각주의의 이원적 설명은 통증의 정의에 있어서는 외부 대상이 아닌 경험에 의존하되, 그 통증 경험이 조직

3) 통증에 대해서 내성(introspection)보다는 외성(exteroception)에 초점을 맞추는 지각 이론은 1960년대 데이빗 암스트롱(D. Armstrong, 1962)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가장 최근 하드캐슬(V. Hardcastle, 1999)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손상에 대한 지각을 매개하는 경험이라고 함으로써 외부 대상을 관련짓는 이원적 방식을 취한다. 다음에서 암스트롱의 견해를 중심으로, 통증 경험의 대상의 측면과 오폭상의 가능성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보겠다.

1. 통증 경험의 대상

통증에 대해 외부 대상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암스트롱(D. Armstrong)⁴⁾은 통증 경험의 속성을 외부의 대상 자체에 일차적으로 귀속하지 않고 통증을 경험하는 주체에게 먼저 부여하는 전략을 취한다.⁵⁾ 이러한 방법은 외부 대상으로 통증 경험을 직접 부여할 경우, 통증 경험의 직접성이나 사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그러한 측면 또한 포섭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가 통증 경험 속성을 부여하는 마지막 단계는 아니다. 만약 이 단계가 통증 경험 속성 부여의 마지막 단계라고 한다면 이 설명은 통증 경험의 외부 대상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주체가 가지는 경험이 예컨대 어깨의 근육 조직 뭉침 과 같은 지향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을 표상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마음 외의 대상인 어깨의 피부 조직의 상태에 경험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앞서 설명한 이원적 구조에 기반하기 때문에 통증의 두 측면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증 경험 속성의 이러한 부여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나는 왼쪽 다리에 둔탁한 통증을 느낀다.
- (2) 나의 왼쪽 다리의 근육 조직이 뭉쳐있다.

4) Armstrong(1962).

5) Armstrong(1968), 314-316.

이 통증 경험 부여의 절차에서, 통증 경험의 사적이고 직접적인 특성은 (1)을 통해 설명가능하며, 이 경험이 어떤 지향적 대상을 가진다는 측면은 (2)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이 이원적 구조를 통해서, 통증 경험의 두 가지 일견 상호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특성들이 조화롭게 설명될 수 있다. 통증 경험의 주관적 특성은 주관적 상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외부 대상의 어떤 상태를 표상한다고 함으로써,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이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주관적 경험에 대한 설명을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관적 측면을 표상으로 연결 지음으로써, 종국적으로는 통증 경험 또한 표상한다는 외부 대상의 측면을 보다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오표상의 가능성

앞서 소개한 암스트롱의 통증 경험의 이원론적 설명에 기반하여, 오표상 또한 설명가능하다. 통증 경험에 있어서 현상과 실제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통증 경험이 현상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에도 귀속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언하자면, 그 통증 경험의 속성이 마음 외부의 대상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 대상에 대해서 잘못 지각 할 수 있다는 오지각(misperception)의 가능성을 함의한다. 오지각은 어떻게 가능한가? 경험의 두 측면들 중 대상이 보여지는 내성적이고 경험적 측면이 실제로 대상이 있는 방식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즉 현상의 측면과 실제의 측면에서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지각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어떤 한 경험 상태에 대한 현상의 측면과 실제의 측면이 분리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대상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발생한다.

지각주의자들은 경험 내용의 이원론적 구조가 오표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통증 경험의 표상 내용은 오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 경험 자체는 오류가 아님”이라는 일견 상치되는 특성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통증 경험의 속성 부여의 이원론적 설명을 다시 정리해보면, 경험 속성의 부여는 두 종류의 속성 부여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경험 속성의 부여이고, 다른 하나는 피부 조직의 손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 상의 표면 구조는 경험 속성의 부여만 이루어지고, 피부 조직 손상이라는 속성의 부여는 나의 경험, 즉 그 통증 경험이 나의 어깨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표상하는 바로 그 경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 다음처럼 (1)과 (2)의 경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자.

- (1) 나는 오른쪽 어깨에 둔탁한 통증을 느낀다.
- (2) 오른쪽 어깨의 근육 조직이 멎쳐있지 않다.

여기서 (1)에서의 통증 경험은 그 경험을 통해서 오른쪽 어깨의 근육 조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상태를 표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2)는 실제로 오른쪽 어깨의 근육 조직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 (2)를 통해서 (1)의 전체 내용인 통증 경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의 내용은 그 통증 경험이 오른쪽 어깨의 근육 조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상한다. (2)가 부정하는 것은 이 표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 표상 내용에 대해서 통증 경험이 일종의 환상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통증 경험이 표상하는 내용이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잘못 표상하는 통증 경험 자체는 실제의 통증 경험이다. 즉, 나는 나의 오른쪽 어깨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통증 경험 자체는 가짜는 아니다.

이원적 구조에 기반한 통증 경험과 잘못된 통증 경험의 설명은 실제의 비정상적인 통증 경험의 사례들을 잘 설명해준다. 팔의 깊은 상처 때문에 부득이하게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한 사람들이 잘려져 나간 팔 부위에 통증을 경험하는 환상통(phantom pain)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통증을 경험한다고

한다. 지각주의는 그들이 생각하는 통증의 부위는 잘못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느끼는 통증 그 자체가 거짓은 아니라고 설명함으로써, 경험 자체의 주관적 측면과 경험이 발생하는 신체 부위라는 대상의 측면 양자를 모두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실제 통증이 발생하는 피부의 위치와 다른 곳에서 통증을 느끼는 관련통(referred pain) 현상이다. 비정상적인 심장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왼손에 고통을 느낀다고 보고된다. 이 때 그 고통이 심장에서 느껴진다고 하지 않는다. 이 때 지각주의의 이원론적 구조에 기반한 설명을 적용한다면, 이 사람들이 “나는 왼손에 고통을 느낀다”고 보고할 때, 그 통증 경험이 표상하는 통증의 위치는 잘못 표상되었다 할지라도 그 통증 경험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설명가능하다. 통증에 대한 지각 이론의 이러한 설명은 경험의 직접성과 사밀성, 그리고 대상에 경험을 귀속하는 문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설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이 하나의 설명으로서 성립하려면, 다른 설명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설명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지각 이론의 설명은 서로 대치되는 두 가지 특성들을 서로 다른 차원에 배치함으로써 공존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은 다른 한편으로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두 종류의 특성들을 그대로 살리고 역할의 배정만 달리하다보니, 하나의 특성만 강조하는 입장들과도 양립가능해지면서 본래는 통증 경험의 외적 대상과의 관련성을 보존하려고 했던 지각 이론의 독자성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통증 경험이 그 외적 대상과 체계적으로 관련을 맺는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는 감각 자료를 직접적으로 지각함으로써 그 대상을 비간접적으로 지각한다고 주장하는 감각 자료 이론과도 유사하다. 통증에 관한 감각 자료를 우리는 먼저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것은 그 감각 자료를 야기하는 신체 영역의 조직 손상을 간접적으로 지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설명 과정은 지각 이론이 제공한 설명과 거의 유사하다. 게다가, 지각 이론은 이렇게 유사한 절차를 설명으로 제시하면서도 지각 대상을 어떻게 직접 자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각 이론은 통증 경험의 주관적인 경험의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도 그 반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지각 이론에서 남은 문제는 통증 경험의 두 측면을 모두 담지하면서도 어떻게 통증 경험이 그 지각 대상을 어떻게 ‘직접’ 자각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 했던 입장은 직접 실재론(direct realism)으로, 예컨대 내가 빨간 사과를 볼 때에는 그 사과나 그 사과의 빨간색을 직접적으로 지각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 사과에 대한 시각 경험의 대상인 사과와는 별도로 ‘사과에 대한 감각질’이나 그 사과를 보게 하는 어떤 것은 없다. 이러한 설명은 그 사과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지각하는 경우에는 유용하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앞에 사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고파서 사과에 대한 환각을 가졌을 때, 환각으로서의 사과에 대한 시각 경험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직접 실재론의 설명은 통증 경험이 실제의 상황을 제대로 표상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좋은 설명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지각 경험의 주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종국적으로 지각 경험의 이중성을 조화롭게 설명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직접 실재론은 지각주의를 더 잘 설명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지각주의는 직접 실재론처럼 대상적 측면을 잘 설명하면서도 오표상까지 설명가능 하도록 이원론적인 설명을 제안하였으나, 서로 경쟁적인 설명인 감각 자료 이론과 직접 실재론 양자와 모두 양립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설명들과 차별성이 없는 설명이 되므로, 과연 통증 경험이 지각경험의 일종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제공하기 어렵다.

지각주의에서 미비하게 충족된 대상의 측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고자 제시된 설명이 표상주의이며 이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IV. 두 종류의 표상주의의 설명

표상주의(representationalism)는 지각주의가 지각 경험의 대상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점을 보강하기 위해 지각 경험이 그 경험이 담보하는 외부 대상과 엄밀하게 연결되도록 한다. 이 엄밀한 연결성은 경험이 가지는 지향적 내용이 외부 대상과 인과 법칙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지각 경험의 표상 내용과 대상은 인과적 공변의 관계에 있으며, 표상 내용에 대한 자연화 된 설명이 된다.⁶⁾ 표상주의는 어떤 지각 경험의 지향적 내용이 경험의 현상적 내용을 구성한다는 주장이다.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을 심적 상태로 가지는 경우에는 다른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경험 상태의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에 표상주의가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반면, 신체적 감각과 같은 비지향적인 감각질의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미리 예상할 수 있다. 시각적 지각과 관련된 현상적 상태는 색 경험과 독립적으로 대상의 속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반면, 통증과 통증 경험의 관계는 분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표상주의는 통증 경험도 지향적 상태라고 함으로써, 자칫 표상주의가 지향적 상태로 환원되기 쉬운 상태에만 적용될 임시적 가설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통증 경험을 다시 색깔 경험과 비교해보자. 만약 색깔이 그 색깔을 가지는 대상의 표면 스펙트럼 반사율과 같은 표면의 객관적 특징이라면, 내가 그 대상을 보는 시각 경험은 스펙트럼 반사율을 표상해야 하지만 색깔 경험은 그렇게 표상하지는 않는다. 즉, 시각 경험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표상하지 못한다. 타이(Michael Tye)는 이러한 문제를 지각 경험의 표상은 ‘비개념적(non-conceptual)’ 표상⁷⁾이라고 설명하면서 해결하려 한다. 즉, 경험 내용은

6) “A가 B임을 표상한다는 것은, 만약 최적의 조건이 얻어진다면 A는 B가 그러한 경우에만 c에서 예증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A는 B 인 경우이기 때문에 c에서 예증될 것이다.”(Tye 2000, 136)

사고(thought)처럼 개념들로 구조화되는 경험 내용이 아니라 그림처럼 연속적으로 표상되는 일종의 아날로그(analog) 내용을 가지는 표상이다. 통증 경험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제기되는 의문은, 개념적으로 구조화될 수 없는 표상이라면 여러 가지 종류의 통증 경험은 어떻게 개별화하여 표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타이⁸⁾는 지각의 내용이 비록 비개념적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통증 경험의 차이는 표상 내용의 차이, 즉 통증이 발생하는 신체 조직 손상의 표상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갑작스런 통증은 부드럽지만 짧은 교란을 표상하며, 찌르는 듯한 통증은 급속하게 고통치는 교란을 표상한다. 강하고 지속적인 통증은 신체 표면보다는 안에서 발생하는 무질서적인 상태를 표상한다.”

이를 기반으로, 타이는 표상적 내용에서 유사한 경험은 그것의 현상적 특성에서도 유사하다는 감각질에 관한 표상주의를 주장한다.⁹⁾ ‘찌르는 듯한’, ‘타는 듯한’, ‘쿵쿵 쑤시는’ 통증을 표현하는 여러 종류의 수식어들이 자체가 통증이 표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¹⁰⁾ 또한 그러한 손상의 표상은 비개념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손상에 대한 사실을 알지 않아도 통증 감각질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상적 특징들은 통증의 두

7) Tye(2009), 109. 지각 경험의 내용을 비개념적 내용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시도는 타이를 포함한 여러 철학자들,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우진(2009)도 이에 동의한다. 현재까지는 비개념적 내용이 어떤 점에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시사적 개념(demonstrative concepts)이나 색인사적 개념(indexical concepts)으로 해석하는 정도로 밖에 구체적 논의가 발전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비개념적 내용’으로 경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논의에 있어서 표지판의 역할만 할 뿐, 구체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본다. ‘비개념적 내용’이 경험 내용 일반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가지게 되는 난점에 대해서는 김효은(2008)을 보라.

8) Tye(1997), 133.

9) 통증 감각질이 표상적 내용을 가진다고 할 때, 그 표상은 믿음이나 욕구에서 사용되는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심상과 같은 종류의 표상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타이의 책 *Mental Imagery*에서 볼 수 있다.

10) Tye(1997), 333.

측면 중 대상의 측면 혹은 감각적 측면에만 해당되고, 괴로운 정서적 측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 정서적 측면은 신체 손상의 표상이라는 설명으로는 포괄되기 어렵기 때문에 표상주의자인 타이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통증 경험에 대한 논의에서 정서적 측면이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이 문제제기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타이는 통증의 두 측면이 이중 분리(double dissociation)¹¹⁾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정서적 측면이 없이도 환자들이 통증을 보고할 수 있으므로, 통증 그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며, 통증은 본질적으로 감각적 측면에 있다고 본다. 예컨대, 괴로운 통증을 느끼는 환자에게 물핀을 투여하면 어떤 감각은 느낄 수 있지만 괴로운 측면의 경험은 사라진다고 한다. 타이의 설명은 이러한 실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통증의 감각적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통증의 대상의 측면을 보존하여 색깔에 적용될 수 있는 표상주의적 설명을 동등하게 통증 경험에도 적용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중 분리현상에 관한 환자들의 보고에 의존하는 타이의 설명은 상황에 대한 상세한 관찰을 간과했다고 생각한다. 통증의 두 측면이 분리되는 현상인 물핀 부여 후의 통증 상태에 대해서, 환자들이 “더 이상 힘든 측면은 없지만, 여전히 통증이 있다”는 것은, 진통제를 투여 받기 이전에 통증을

11) 이중분리(double dissociation) 현상이란, 예를 들어, 갑 환자는 A라는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B작업을 수행하는 데 장애를 보이는 반면, 을 환자는 거꾸로 B 작업은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A 작업 수행에 장애를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로부터 A와 B, 두 작업이 서로 독립적인 인지 기능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작업이 당연히 상호의존적이라고 생각되어 온 현상들이 이중분리를 통하여 서로 독립적인 인지 기능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며, 그러한 인지 기능에 해당하는 두뇌 부분을 다른 것으로 분석하는 증거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분리의 대표적인 예는 음성적 난독증과 표면 난독증(Phonological dyslexia and surface dyslexia)이라고 한다. 표면적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일반 단어들을 읽을 수 없으면서도, 발음할 수 있지만 단어가 아닌 글자들은 읽을 수 있다고 한다. 거꾸로, 음성적 난독증을 가진 환자들은 발음할 수 있는 글자들은 읽을 수 없으면서, 일반 단어들을 읽지 못한다.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근거로 진통제를 부여 받기 이후의 감각적 반응만 남아 있는 상태를 ‘통증’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상황을 고려해보자. 통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가 아닌 건강한 보통 사람에게 위의 사례에서 환자에게 투여한 종류의 진통제인 물핀을 투여한 후, 어떤 수단을 동원하여 통증을 야기하면, 과연 그 사람은 통증을 느낀다고 보고할 것인가? 통증이 아니라, 어떤 둔탁한 감각 등 통증이 아닌 다른 감각을 보고할 것이다.

타이 식의 표상주의로 통증을 설명하는 데 있어 난점은 통증을 가지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신체손상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그 감각적 측면을 자각하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타이는 그러한 난점은 통증의 현상적 특성이 비개념적이라는 점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¹²⁾ 즉, 우리는 통증과 관련된 신체 손상에 관한 개념 자체를 가짐으로써 통증을 표상할 필요는 없다. 이는 통증 감각질의 질적 특징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 잘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바로 그 비개념적 내용이 현상적이라면, 그 표상 내용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하게 된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통증이 발생하는 신체 부분의 손상에 대한 개념은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체 손상을 비개념적으로 자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크레인¹³⁾은 시각적 경험의 경우 비개념적인 표상 내용은 두뇌의 어떤 시각 시스템의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안한다. 어떤 특정한 색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시각 시스템의 과정이나 상태는 개념으로 포섭되기 어렵다. 크레인의 이 제안은 표상적 내용이 비개념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주면서, ‘통증은 신체

12) 어떤 느낌의 대상이 비개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는 빨강의 여러 색조에 대하여 다른 느낌을 가지지만 우리는 그 다양성 각각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통증의 이러한 비개념성은, 감각적 자극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사고를 가지지 않는 동물이나 어린아이에게도 현상적 의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타이는 본다. Tye(2000), 60.

13) Crane(2003), 49.

손상 상태에 대한 표상'이라는 정의와도 일관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표상 내용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 표상 내용을 자각하게 되는가? 이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타이의 해결 방법은 현상적인 경험 내용을 만들어내는 기능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예컨대, 두뇌 상태로서의 통증 표상의 내용이 통증에 대한 현상적 측면을 발생시키는 기능적 역할을 가질 경우, 그리고 이 기능적 역할이 우리의 인지적 상태로 파악될 때 그 표상 내용에 대한 자각이 가능할 수 있다. 타이에게 있어 이 기능적 역할은, 현상적 표상의 내용이 갖추어야할 조건들로서, '준비되고, 추상적이고, 비개념적이고, 지향적인, 표상적 내용'(PANIC: Poised, Abstract, Nonconceptual, Intentional or representational Content)으로 특징 지워진다.¹⁴⁾ 그런데, 타이의 이 설명은 통증 경험의 내용이 통증 경험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통해 포섭되는 내용이어서, 정작 통증 경험의 정서적 측면, 그리고 심지어는 감각적 측면까지도 어떻게 정확히 설명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예컨대, 타이의 연관통(referred pain)의 사례를 보자. 나의 오른팔에 느껴지는 통증이 그 오른팔의 이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이상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장에서 느껴진다고 하지는 않는다. 즉, 오른팔의 통증의 원인은 정작 다른 부분에 있지만 통증은 그들의 오른팔에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타이의 설명¹⁵⁾에 따르면, 이러한 연관통의 상태는 통증을 잘못 표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증과 관련된 신체 부분의 손상은 심장에서 발생하였고 그 통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팔의 통증'보다는 '팔의 통증으로서 경험되는 통증'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 타이의 설명에 따르면, 심장의 이상에 원인이 있는 팔의 통증은 일종의 환상으로 진짜 통증이 아니게

14) Tye(2000).

15) Tye(2003), 54.

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설명은 실제의 통증 경험과 비일관적이고, 통상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는 통증 경험의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감각적 측면에 대한 적절한 설명조차 되지 못한다. 표상주의는 지각주의의 설명보다는 분명히 통증의 대상의 측면에 대한 설명이 보충되었다는 점에서, 통증을 지각적 경험의 일종으로 설명하는 데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대상의 측면을 반영하는 표상적 내용을 강조하다보니 실제 통증 경험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는 감각질을 표상 내용을 통해서만 해명하려는 시도가 부적절하며, 표상주의가 명제태도가 연루되는 심적 상태나 시각 경험처럼 지향적인 경험 상태에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이론이거나 임시적 가설일 수 있다는 우려를 여전히 가지게 한다. 그렇다면, 통증 경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표상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험 상태의 표상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또다른 표상주의 옹호자인 드레츠키(Fred Dretske)¹⁶⁾는 타이가 정의하였던 표상 내용--최적의 환경에서의 인과적 공변의 상황--에 더하여, 그러한 내용이 목적론적(teleological)으로 고정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 드레츠키는 생물적 기능이론을 경험 상태에 대한 설명에 적용함으로써, 표상적 내용을 유기체의 진화와 학습의 역사에 기반하여 진화적으로 고안된 바를 표상하는 정보적 내용으로 본다. 이를 통해서, 드레츠키의 표상주의 설명은 타이의 표상주의 설명과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된다. 드레츠키는 타이와는 달리, 외부적으로 표상되는 속성의 본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대신 그러한 외부적 속성이 우리에게 표상되는 ‘특정한 방식’을 해명하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심적 표상이 아니라 드레츠키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어떤 유형의 심적 표상만이 의식적인 경험 상태에 포섭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까치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닐 때 그에 대한 나의 시각적 경험을 생각해보자. 이 때 그 경험의 현상적 특성은 까치라는

16) Dretske(2005).

내용과 그 시각적 경험의 양상에 의해서 주어진다. 반면, 까치소리를 듣는 청각적 경험은 시각적 경험과 양상이 다르다. 즉, 현상적 차이는 예컨대 까치와 같은 표상 내용뿐 아니라 그 내용의 어떤 측면에 대한 것인지 등등과 관련된 표상 양상의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타이가 통증의 표상 내용을 신체의 손상된 상태, 즉 표상 내용으로 본 것에 반해, 드레츠키는 통증은 신체 안에서 진행되는 바에 대한 일종의 지각, 즉 표상 양상으로 본다. 즉, 우리의 ‘통증’ 개념은 그에 해당하는 신체 상태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속성을 자각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양상’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은 통증 경험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정서적 측면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나의 손등의 세포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자극의 느낌을 주지 않는다면 통증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이가 제시한 종류의 표상주의는 조직 손상이라는 표상 내용만을 경험 상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일향적 속성으로 경험 내용을 설명하여, 의식의 경험적 측면과 관련 없는 신경생리학적 속성으로 환원하여 결국 통증 경험의 두 측면 모두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었다. 반면, 드레츠키의 표상주의 설명은 감각질을 그 속성과 그것을 자각하는 감각 주체와의 관계에 의해 규정지어지는 이향적 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난점들을 피할 수 있다.

필자는 드레츠키 방식의 표상주의 설명이 유사한 경험 내용들 간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평가한다. 예컨대, 감각질을 타이처럼 일향적 관계로 보는 경우, 통증의 경험과 가려움의 경험은 그것이 표상되는 상태들의 차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즉, 통증은 어떤 조직 손상의 표상이며, 가려움은 경미한 자극의 표상이라고 설명하게 된다. 그런데, 두 경험의 차이에 대한 설명에서 두 가지 자극을 본질적으로 구별하는 내용을 찾기는 어렵다. 경미한 자극은 약한 정도의 통증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설명이기 때문이다. 반면, 통증을 이향적 관계로 보는 드레츠키 방식의 표상주의에 있어서는, 두 경험 사이의 차이는 표상되는 바의 상태들 간의 차이보다는

그것에 관련되는 감각 주체와 관련하여 갖게 되는 상이한 양상으로 구별할 수 있으므로, 경험들 간의 차이를 본질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표상 양상을 통해서 경험 내용을 고려하면, 다른 설명에서 난점으로 여겨졌던 환상지통(phantom limb)이나 연관통(referred pain)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타이의 표상주의 설명에 있어서는 환상지통이나 연관통은 잘못된 통증이고 일종의 환상으로 여겨지는 반면, 드레츠키 식의 표상주의 설명은,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통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양상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V. 표상주의에 대한 비판과 가능한 반박

표상주의 설명은 애초에 통증 경험의 외부적, 대상적 측면을 잘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런데, 통증 경험의 대상인 조직 손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험의 측면에 먼저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표상주의의 난점이다. 타이의 표상주의뿐만 아니라 드레츠키의 설명 또한 대상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참고해서 통증 경험을 설명할 수는 없었고, 매개체나 도구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통증 경험을 설명하였다. 이 점 때문에, 표상주의를 반대하는 이들은 표상주의가 통증 경험을 설명할 때 정작 대상에 의존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게 된다. 이러한 비판은 ‘경험에 호소해서 설명한다’는 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통증 경험에 대한 표상주의의 설명에 있어서 경험적 측면이 부각됨으로써, 또 다른 의식 경험의 한 종류인 시각 경험에 대한 표상주의의 설명과 일관적이지 못하게 되고 이 점은 결국 표상주의 설명을 미완의 설명으로 남길 뿐만 아니라 “통증 경험이 과연 (시각 경험처럼) 지각 경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시각 경험인 색깔 경험의 경우, 외부에 위치한 대상에 색깔 속성을 ‘직접’ 부여할 수 있는 반면, 통증의 경우 타이 방식이든,

아니면 드레츠키 방식의 설명이든 내적인 통증 경험을 통해서야만 ‘간접적으로’ 그 경험 속성을 몸의 한 부분의 조직 손상에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 경험과 통증 경험은 여전히 비대칭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표상주의가 이러한 난점을 벗어나려면, 통증 경험은 직접적으로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방식은 앞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던 직접적 실재론을 다시 채택하는 수밖에 없다. 색깔에 대한 정의는 직접적으로 그 대상의 속성을 지칭하여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통증 경험에 대한 정의는 그 통증이 발생하는 대상을 참고한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통증 경험을 참고하지 않으면 통증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은 이미 지각주의 이론도 주장했던 바이므로, 유사한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통증 경험에 있어서는 표상주의 설명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은 결국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표상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이중분리(double dissociation)의 현상들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한다. 신경과학에서의 분리 실험들은 기능적으로 구별되는 신경 절차들을 개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언급한 통증의 두 측면들은 기능적으로 구별되는 두 신경절차와 관련되어 있다. 만약 어느 한 신경 절차가 기능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심리적으로도 그에 해당하는 심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측 시상(medial thalamus)에 손상을 입은 경우 일상적인 통증의 괴로운 측면이 없이 통증이 발생하는 장소만 보고한다. 이는 감각 수용기 자극과 고통스러운 감각이 분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최면이나 위약 효과는 고통스러운 정서적 측면이 발생하지 않아도 감각 수용기 자극만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중 분리의 현상들은 고통스러움이 없이도 통증을 가지는 것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상태는 경험적 측면에 의존하지 않아도 통증에 있어서 외부 대상의 측면인 조직 손상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표상주의에 제기된 문제점, 즉 ‘설명해야 할 외부 대상의 측면보다

설명 도구인 현상적 측면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자가당착의 상황’에 대해서 현상적 측면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필자는 이러한 가능성은 받아들이지만, 비정상적인 통증 경험의 사례들인 이중 분리 현상들이 아닌 일반적인 통증 경험의 사례들은 통증의 두 측면이 항상 함께 발생하므로 동일한 설명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통증의 서로 상충하는 두 측면을 조화롭게 설명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통증이 지각 경험의 일종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앞서의 이론적 정합성을 따지는 논변에 더하여, 실제 통증 경험의 부여가 대상에 부여되는지 아니면 경험에 부여되는지의 여부와도 일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여부가 거꾸로 통증 경험에 대한 여러 설명들 중 한 설명을 더 정합적으로 세련되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음 절에서 보겠다.

VI. 통증 경험은 실제로 어디에 부여되는가?

필자는 ‘통증 경험이 과연 표상적인가?’ 혹은 ‘통증 경험은 지각적 경험인가’의 논의가 지각 경험의 대표적인 예인 시각 경험에 비교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하여 논의해왔다. 지각주의와 표상주의에서의 논의들은 주로 ‘통증 경험’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실제로 통증 경험의 내용은 ‘통증을 느낀다’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와도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통증이라는 개념은 실제 우리 인간의 통증 개념 부여와는 동떨어진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문의 핵심적 문제인 “통증 경험은 지각 경험인가”를 알기 위해, 위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통증 경험이 시각 경험에서 처럼 ‘통증’을 외부 대상에 부여하는지의 여부를 볼 필요가 있다.

시츠마(Justin Sytsma)는 사람들이 실제로 통증 경험을 몸의 일부에 부여하는지, 아니면 경험에 부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몸이 하나이고 머리가 둘인 결합 쌍둥이 (conjoined twins)의 예를 활용한다. 사람들에게 결합 쌍둥이

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왼쪽 발을 다쳤다고 할 때 그들이 가지는 통증은 하나인가 둘인가를 물었을 때, 사람들은 그 통증은 하나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로부터 시즈마는 사람들이 심적 경험보다는 신체의 상태에 통증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통증 경험은 경험보다는 대상에 부여되는 경향이 있다는 소박한 실재론(*naive realism*)의 입장을 취한다고 결론 내린다.¹⁷⁾ 또한, 로이터(*Kevin Reuter*)는 통증의 두 측면을 나타내어 주는 ‘통증을 느낀다(*feeling pain*)’와 ‘통증을 가진다(*having pain*)’는 언어의 사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람들은 통증이 약할 때 전자를 사용하고 반면 통증이 강할 때에는 후자를 사용하는 패턴을 발견하였다.¹⁸⁾ 시즈마와 로이터의 연구들은 실재론뿐만 아니라, 통증 경험의 본성을 외부 대상에서 찾으면서 지각 경험과 유사한 지각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표상주의적 설명이 통증 경험에 있어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의 연구는 실제 통증 경험을 일상적으로 겪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의미 있는 통계적 검토를 통해 반영한 것이므로, 큰 의미가 있고 거꾸로 철학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필자는 이들의 연구는 사람들이 통증을 외부 대상에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결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서 통증과 관련된 이중 분리의 상황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일반적인 통증 경험의 상태는 통증의 두 측면이 함께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즈마가 검토하였던 결합 쌍둥이의 경우도 두 측면이 함께 발생하는 일반적인 통증 상황이다. 그런데, 이 때 사람들이 통증의 경험적 측면을 매개로 해서 신체의 상태에 통증을 부여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통증을 외부 상태에 부여하는지의 여부는 위의 연구만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로이터의 연구 또한 동일한 이유로, 표상주의나 소박한 실재론을 지지하는 결정적 증거로

17) Sytsma(2010).

18) Reuter(2011), 99-101.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박은 가능하다. 예컨대 일반인의 통증 경험 부여 자체는 통증의 경험적 측면을 포함하는지의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그것 자체로 위의 연구에 대한 완전한 반박이라 보기 어렵다. 즉, 사람들이 통증을 신체 부분에 귀속시킬 때, 이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증 개념이 과연 외부 대상의 측면인지, 경험의 측면인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반박은 일견 어불성설처럼 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시즈마와 로이터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명백하게 통증이 ‘다리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통증이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배우는지, 이 언어 학습과정에서 배운 통증 개념이 외부대상을 가리키는지, 경험을 가리키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아프다”라거나 “내 발에 통증이 느껴져”라는 표현을 배우게 되는지 생각해보자. 어린아이는, 학문적으로 “통증이라는 것은 외부 대상에 있는 것이야”라고 개념 그 자체를 배우기보다는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에 통증을 느낄 때 그 부분을 가리키면서 ‘아프다’라고 발화하는 어른들의 표현을 보고 들으면서 통증 개념의 사용 사례들을 통해 통증 개념을 배우게 된다. 즉, 통증 개념의 획득은 외부 대상에의 지칭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해 통증 개념을 사용하는 우리들은 불가피하게 통증의 외부 대상의 측면으로 통증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통증 언어의 학습과 발달 과정에서 통증 개념의 외연성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통증 개념을 학습하는 상태에서는 통증 개념의 외연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이 뚜렷이 구분되기 이전이라는 점이 중요한 논의의 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비록 어린아이가 통증이 일어나는 외부 대상인 몸의 어떤 부분을 가리킴으로써 통증 개념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통증’의 개념을 본인이 사용할 때, 경험의 측면과 외부 대상의 측면을 분리해서 그 중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즉, 어린아이가 통증 개념으로 지칭하는 대상과 통증 개념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겉보기

에' 통증 개념은 통증의 경험적 측면보다는 대상적 측면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증이 발생한 원인이 있는 부분을 가리킴을 통해서 통증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증 개념은 외부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통증 개념이 현상적인 경험의 측면과 대상의 측면 모두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 필자는 이 가능한 반박 또한 필자의 반박과 일관된다고 본다. 필자의 반박은 소박 실재론을 옹호하려는 위의 두 연구들이 통증의 대상적 측면을 가리키기에는 미결정적이라는 다소 소극적인 반박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에 대한 가능한 반박 역시 결정적인 반론이 되기는 어렵다.

VII. 결론

필자는 지금까지 통증 경험이 시각 경험처럼 지각 경험에 속하는지, 아니면 비지각적 경험인지를 보기 위해, 시각 경험이 지각 경험의 일종이라는 설명들을 검토하였다. 통증 경험이 특히 현상적 의식의 영역 안에서 두드러지게 논의되는 이유는 통증 경험이 대상의 측면과 경험의 측면을 모두 가진다고 할지라도, 특히 그 존재가 주관적인 경험의 측면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관적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면, 환상통이나 연관통, 그리고 의학적인 처치에 따른 통증 경험의 변화 등 실제적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통증 경험에 대한 설명은 경험의 주관성을 설명하되 동시에 오표상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상의 측면 또한 담지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드레츠키 방식의 표상주의 설명이 통증 경험의 다양성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통증 경험이 대상으로 부여된다는 언어 사용의 측면과도 양립가능하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통증 경험의 특징이 경험의 주관적 측면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설명들에서도 통증 경험의 대상의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고 하였다. 이 점은 설명 자체의 난점이라기보다는 통증 경험이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주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적 지식이자 자기지식(self-knowledge)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철학적 논의와도 연관 지어 더 깊게 논의되어야 발전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차후의 후속 작업으로 남겨놓겠다. 여기서 필자는 다양한 입장들을 검토함으로써 통증 경험이 지각경험의 일종인지에 대하여 완전히 결정적인 논변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아니다. 최소한 통증 개념이 통증의 정의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없고, 통증 개념을 어떻게 부여하는지와 더불어 그 이상의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여 앞으로의 통증 경험에 대한 보다 나은 설명을 위한 전초전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효은(2008), 색과 지각경험의 역설, 『철학연구』 80집, 155-175.
- 한우진(2009), 비개념적 내용과 현상적 의식, 『철학연구』 84집, 315-340.
- Armstrong, D.M.(1962), *Bodily Sensation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_____ (1968), *A materialist theory of the mind*, New York: Humanities Press.
- Crane, T.(2003), “The intentional structure of consciousness”, in Quentin Smith & Aleksandar Jokic (eds.), *Consciousness: New Philosophical Perspe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33-56.
- Dretske, F.(1995), *Naturalizing the Mind*, Cambridge, MA., MIT Press.
- Hardcastle, V.G.(1999), *The Myth of Pain*,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Melzack, R. and K. L. Casey(1968), ‘Sensory, motivational, and central control determinants of pain: a new conceptual model’. *The Skin Senses*, D.Kenshalo, Ed. Springfield: Chalred C. Thomas, 223-43.
- Reuter, K.(2011), “Distinguishing the appearance from the reality of pain”,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18:9-10, 94-109.
- Sytsma, J.(2010), “Dennett's theory of the folk theory of consciousness”,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17:3-4, 107-130.
- Tye, M.(1995), *The Problems of Consciousness: A Representational Theory of the Phenomenal Mind*,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 (1997), “A representational theory of pains and their phenomenal character”, *The Nature of consciousness: philosophical debates*, Block, Flanagan, and Guzeldere, Eds.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_____ (2000), *Consciousness, Color, and Content*, MIT Press.
- _____ (2003), *Consciousness and Persons: Unity and Identity*, MIT Press.
- _____ (2009), *Consciousness Revisited: Materialism Without Phenomenal Concepts*, MIT Press.

Abstract

Conscious experiences are typical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perceptual experience (e.g. seeing red) and non-perceptual experience (e.g., body sens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pain is a kind of perceptual or non-perceptual experience. If pain is a perceptual experience, the property of the experience is characterized mainly by objective aspects such as bodies. Pain as non-perceptual experience is characterized by its introspective qualities. Traditional, introspective characterization of pain cannot explain pathological cases such as phantom limb, and referred pain. Fred Dretske's representational account of pain experience reconcile the subject and objective aspect of pain as well as explain pathological cases. Ordinary notion of pain also indicates the objective aspect of pain as the essential part of pain experience. However, the question as to how the subjective aspect of pain can be associated with the objective aspect remains as a matter to be discussed further.

【Keywords】 Pain, Perceptual Experience, Perceptualism, Representationalism, Dretske

논문 투고일: 2014. 10. 10

심사 완료일: 2014. 10. 17

게재 확정일: 2014. 10. 17